삼성·LG·샤오미 MWC서 '스마트폰 정면승부'

〈바르셀로나 모바일 박람회〉

MOBILE WORLD CONGRESS BARCELONA 22-25 FEB 2016

삼성 갤S7·LG G5·샤오미 미5 동시 공개로 뜨거운 관심
아이폰, 내달 신제품 선봬

오는 22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6(MWC)' 쇼케이스 현장. 〈MWC 페이스북〉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6'(MWC·Mobile World Congress)가 '모바일이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에서 열린다. '모바일의 꽃' 스마트폰 경연장으로 불리는 MWC에서는 삼성과 LG의 첫 맞대결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중국의 샤오미도 가세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폰 전쟁은 22일 본격 개막된다. 첫 포문은 LG가 연다. LG는 전략 프리미엄폰 'G5'와 새 보급형 라인업 'X 시리즈'를 21일 오후 2시 전격 공개한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행사를 MWC에서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MWC는 삼성의 갤럭시S 시리즈 데뷔 무대 성격이 강했다. G시리즈의 공개와 출시시점은 갤럭시S 시리즈보다 다소 늦은 4월~5월이었다.

LG가 예년과 달리 G시리즈 공개시점을 앞당기고 공개무대로 MWC를 선택한 것은 삼성의 갤럭시S7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베일을 벗는다'는 마케팅 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G5가 부진에 빠진 LG의 스마트폰 사업을 되살려야 하는 '병기'인 만큼 이참에 아예 갤럭시S7과 맞대결을 해보자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G5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20'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착탈식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면 크기는 5.3인치로 전작 G4(5.5인치)보다 다소 줄어들었거나, 지난해 하반기 모델 'V10'에서 첫선을 보인 '세컨드디스플레이'(보조화면)를 넣으면서 오히려 커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삼성은 LG의 'G5' 공개 5시간 뒤 갤럭시S7을 공개한다. 전작 갤럭시S6에서 디자인 혁신을 이룬 만큼 7번째 갤럭시S는 성능개선에 무게를 둔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이 전 세계 미디어에 보낸 초청장을 보면 테두리에 숫자 '7' 모양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검정색 정육면체 상자 이미지가 놓여진 것으로 미뤄 '갤럭시S7'은 전작보다 직선을 더 강조한 디자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로는 '압력 감지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다. 화면을 누르는 압력의 세기를 구별해 각각 명령을 내리는 기술로, 애플이 '아이폰6S'에서 처음 선보인 '3D 터치'와 유사한 기능이다. 갤럭시S6에서 제외돼 갤럭시S 사용자들의 반발을 산 외장 메모리카드 슬롯은 다시 탑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 중국 기업도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스마트폰 1억대를 판매해 세계 3위 제조사로 떠오른 화웨이는 이번 MWC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와 투인원 태블릿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부스도 지난해처럼 참가 기업 중 가장 웅장한 규모로 꾸린 뒤 자사 대표 프리미엄과 보급형 스마트폰 전 모델을 전시할 예정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오른 샤오미는 올해 MWC 무대를 통해 전 세계에 자사 브랜드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샤오미는 그동안 특허권 문제로 해외진출이 더뎠다.

샤오미는 24일 전략 스마트폰 '미5'(Mi 5)를 공개한다. 글로벌 첫 데뷔무대라 이목이 쏠리는 게 사실이다.

이 밖에 레노버와 ZTE 등 다른 중국 제조사 역시 화웨이, 삼성, LG 부스가 차려진 메인 전시장에 부스를 꾸리고 자사 스마트폰을 뽐낸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국제 전시회장에 참가하지 않는 만큼 이번 MWC에도 등장하지 않는 대신 다음달 중순께 미국에서 4인치 보급형 아이폰 신제품 공개행사를 열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존심' 소니는 프리미엄 신제품 '엑스페리아 Z6'를 선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작 'Z5'가 나온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박기웅기자 pboxer@·연합뉴스

남들 일할 때 노는 개미, 이유가 있다?

日연구팀 "모두 일하면 피로로 집단멸망…때론 비효율도 필요"

일하지 않고 노는 개미가 항상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집단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하는 개미들이 지쳐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놀던 개미들이 대신 일을 해 집단존속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일하는 개미집단은 개미들이 지쳐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멸망위험에 빠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홋카이도대학 하세가와 에이스케 교수 연구팀의 이런 연구결과가 지난 16일 영국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다.

지금까지 개미집단에는 항상 20~30%의 일하지 않는 개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하는 개미만을 모아 집단을 구성해도 일정 비율은 일하지 않고 쉰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개미만을 모아 집단을 구성하면 20~30%를 제외한 나머지 개미들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있으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연구팀은 일본 전국에 서식하는 시와쿠 시개미를 사육, 각 개미마다 구분할 수 있게 색을 칠한 뒤 8개 집단, 1200마리의 행동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 처음에 일하던 개미가 쉬게 되자 일하지 않고 놀던 개미가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집단 75마리 개미 모두가 일하다 일제히 피로가 쌓이는 경우와, 일하는 강도가 서로 다른 집단의 경우를 비교했다. 전체가 모두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구성된 집단은 구성원 모두가 일제히 피로해져 움직일 수 없게 돼 집단멸망이 빨라지는 데 반해, 일하지 않는 개미가 있는 집단은 오래 존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개미가 피로해졌을 때 놀던 개미가 대신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세가와 교수는 "일하지 않는 개미가 항상 있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집단의 존속에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간의 조직에서도 단기적인 효율이나 성과를 요구하면 악영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과학관, 전문 강사·해설사 양성

내달 16일까지 소양·실습교육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오는 28일부터 3월16일까지 '2016 국립광주과학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은 광주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을 상대로 체계적인 과학문화와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교육·해설의 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과정은 기본소양 5시간과 심화실습 1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심화실습교육은 현재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와 해설사들의 시범수업과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시연평가를 거쳐 광주과학관에서 교육강사나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비는 전액무료로 과학관 전시와 교육에 관심 있는 이공계 출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과학관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선발된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광주과학관은 호남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드론시장 선점하라

지난해 특허출원 389건
화재 진압·구조용 등 다양

'무인기'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 관련 특허가 총 389건 출원됐다. 이는 전년 149건에 비해 무려 161%가 급증한 것이다.

국내 기업의 드론 특허출원은 2012년 이전 연간 30여건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126건으로 대폭 상승한 뒤 2014년 149건, 지난해 389건 등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드론이 미래 유망분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노력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출원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다수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이었다.

출원되는 세부기술 분야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뤄진 분야는 비행체 및 운용기술 분야로, 지상에서 이동하면서 불을 끄다가 필요할 때 비행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드론'과 수상 조난사고 때 인명구조에 사용되도록 구명장비 투하장치를 구비한 '구조 드론' 등이 지난해 특허로 등록됐다.

드론을 자동으로 이착륙시키고 충전하는 이착륙 기술 특허출원도 늘었다.

이착륙 기술의 특허사례로는 여러 대의 멀티콥터가 자동으로 착륙해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 등의 특허기술이다.

올해 정부가 드론 상용화에 적극 나섰고,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드론 관련 특허출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2020년엔 한국인 90% 모바일 이용"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7명,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모바일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네트워크장비 전문업체 '시스코코리아'는 최근 전 세계 모바일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모바일기기 사용자는 5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시기 우리나라는 모바일기기 사용자 수는 461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세계 모바일 트래픽의 81%가 스마트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6%보다 5%p 증가한 수준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54억명까지 늘어 전기(53억명), 수도(35억명), 자동차(28억명) 사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4층)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 보 5,000만, 월 480만 ☆
매가 6억7천만 (융 , 1억2천)
☆ 원룸 추천 ☆
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모아 A.P.T 코너자리)
(1층상가, 1개,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융 1억5천만)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
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엘리베티어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010-6670-9800

1층 상가 매매
〈광산구 월계동 , 첨단지구〉
첨단 부영1차 A.P.T.건너편
(광산 KT지사 부근)
※ 미용실,식당,프렌차이즈 추천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
(보 - 800만, 월 80만)
매가 1억5천만
☆ 소액 상가투자 물건☆
①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올수리
(융5천) (보5백,월42만) → 매가 8천5백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압록역 , 섬진강 부근 → 매가 4천5백만
③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2층) 올수리
(융1천) (보200,월27만) → 매가 3천5백만

8층 상가 매매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정문 앞
교육시설단지, 공장단지
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56개
8층 (주택겸사무실)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
보 2억 - 월 3,000만
(융 , 25억)
매가 35억
010-7384-7800

(주) 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2. 동구 학동 (근린시설) (토 114평 , 건 60평)
(1층-사무실 , 2층-주택)
학운동 주민센터 북서측위치 , 약 2m 진입로 있음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8천6백
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최저가 2억 5천만
4.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룸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5.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 주변 아파트단지 ,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주택)
①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지하 - 창고 ,1층~2층 - 주택)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① 서구 풍암동 (토 74평,건131평) 풍암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1층-룸 5개, 2층 - 룸 5개 , 3층 - 룸 2개)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건 161평)
한국방송통신대 북서측 인근, 8m도로 접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1억8천7백
③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74평,건 424평)
총 5층 , 10m도로 접 , 양동시장 부근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6천
④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운천역 3분거리
감정 12억 → 최저가 6억8천
⑤ 북구 중흥동 (토 81평,건 298평)
총 5층 , 중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 약8m 도로접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7천
☆직원 구함 ☆
경매 컨설팅 , 부동산 배우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분 모집 합니다.
010-6834-4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010-6832-9700